

將軍의 出生을 記念하는 石塔이 있다함을 듣고 京畿道誌에서 住所를 確認하고 塔婆目録에도 收錄된 것이 塔의 踏査에 即刻 떠났다. 동네는 三幕寺와 戀主庵을 멀리 바라보는 山麓의 農村으로 村中을 맑은 냇물이 흐르는 데 어딘가 牙山忠武公舊宅村을 聯想케 하니 洞名은 『탑골』로 通하고 있다. 塔은 現高約 四四八cm의 古色을 띠는 方形花崗石塔으로 單層基壇(面石은 四枚 結構式)에 現在는 三層까지 남아 있다. 屋蓋石、塔身石은 各層一石造이고 屋蓋받침數는 二段씩이며 各層屋蓋石上엔 괴임을 一段 造出하였다. 第一塔身高의 約 1.4까지는 基壇甲石위에 만들어진 一段 괴임이 甲石과 同石으로 되었고 殘部인 約 3.4程度는 別石으로 마련되어 마치 第一塔身이 折斷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데 그 前面엔 姜邯實落星臺라고 刻銘이 있음이 注目된다.

第二塔身... 二層부터는 減縮率이 甚하고 落水面은 短促되었고 勾配가 急한 편이다. 簷端은 若干 傾斜지고 轉角이 他層에 比하여 反轉이 强함. 三層屋蓋石은 簷下가 水平이고 相輪部는 喪失되었다. 屋蓋石 등으로 보아 元은 五層塔이었음이 틀림없는 듯하다. 實測值(單位cm)

基壇 高 幅 隅柱幅 甲石長 甲石厚 副緣
 一一〇・五 一一三・〇 一九・八 一六五・〇 一八・八 厚五三長一五五・〇
 塔身 高 幅 隅柱幅 屋蓋長 轉角高
 一層 七八・〇 六七・二 一六・〇 一一三・五 一四・五
 二層 三五・七 五六・五 一一・八 一〇八・五 一四・〇
 三層 一六・五 四九・六 一一・八 八四・五 一三・六

대체로 手法이 鈍重하여 麗下代에 가까운 塔이라고 推測되며 附近은 村中으로 되어 寺址였던 아무런 遺物도 없다. 잘 保管되고 있는데 日政時 放置되어 最上層이 없어졌다고 한다. 史的으로 考證해야 할 餘地도 있겠지만 藝術的價値를 따지기 보다는 開城博物館의 姜邯實塔(塔婆目録 P. 八 NO. 1)이 볼 수 없는 오늘날 이 塔의 存在에 좀더 關心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冠岳山에의 하이킹코스으로도 適合하여 巴士를 上道洞終點에서(崇實大學前)下車, 冠岳山쪽으로 通하는 큰길을 따라 작은 언덕을 하나 넘어 徒步로 約 三八分程度, 얼마전에 서울시로 編入되어 永登浦

區 奉天洞(落星洞)二一七番地 崔在完氏宅後便

① 東國輿地勝覽卷十(衿川) 人物條에(高麗)姜邯實. 顯宗時. 却契丹兵. 官至門下侍中. 諡仁憲. 世傳有一使臣. 夜入始興郡. 見大星隕于人家. 遣吏往視之. 適其家婦生男. 使臣心異之. 取歸以養. 是爲姜邯實. 後宋見使見之. 不覺下拜曰. 文曲星不見久矣. 今在此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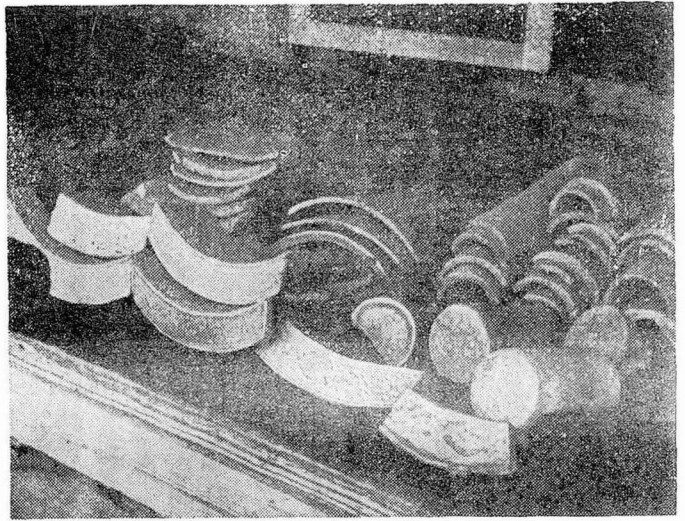
② 金龍基編 京畿道名勝古蹟沿革史(pp. 七〇—七二)
 世宗時倒落된 것을 其後에 修築 現在는 十五尺 四方 六尺四寸의 四層塔... 으로 있으나 基壇까지를 세어서 四層이라고 하였는지 四層도 있었는지 喪失하였는지 不明.

③ 京畿道誌下卷 始興郡條(P. 九〇〇)
 「落星」이라는 字意로 보던 仁憲姜邯實의 出生地가 아니라 死沒地라고 解釋되나 出生地인 것이 分明하다.

康津 沙堂里 靑瓦窯址 發掘 參觀記

鄭 永 鎬

高麗時代는 陶磁工藝의 全盛時代라고 할만큼 陶藝는 高麗藝術의 代表로서 特히 그 값고도 파릇한 翡翠보다도 아름다운 靑瓷는 너무나도有名하여 오늘날 누구나 다 當時의 神秘스러운 手法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에 數週日前 우리 나라 美術史上 가장 偉大한 業績의 하나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곧 지난 九月二十三日부터 約 三週日間 康津郡大口面 沙堂里 堂前部落 一一七番地(戶主 李龍熙氏 二六歲 農業)에서 國立博物館의 崔淳雨教授 總指揮下에 靑瓦窯址를 發掘하여 近來에 드문 큰 收獲을 거두운바라 하겠다. 이때 筆者도 現地에서 作業을 參觀할 수 있는 榮光을 갖인 바 있기에 簡單히 現場에서의 느낌을 추려볼까 한다.



이곳 沙堂里와 隣接한 水洞里、龍雲里等一帶에는 史蹟으로 指定保存되어 있는 陶窯址가 八十餘個所나 있는데 今番 實施된 發掘地域은 全혀 처음인 곳이다. 邑內에서 約七十里되는 이마을은 西南方으로 푸른바다가 展開되고 뒤로는 골짜기에 連하면서 山으로 둘러있다. 일찍이 이곳에는 松林이 茂盛하였으나 六·二五事變때 모두 燒滅되었다는 바 燃料가 豐富한 바

富렸었던 條件과 여기서 生産되는 磁土原料等이 아마도 이곳一帶 窯業發達의 한 原因이 되었을 것이다. 西北쪽에 둘러있는 美山기슭은 바다로 當時의 船舶寄港址가 近來에 까지도 있었다는 바 지금도 그 자리의 바닷물속에는 無數한 靑瓷片이 눈에 띄고 있다. 이는 아마도 海上交通의 要件을 立證하고 있는 바라 할 것이다. 이렇듯 諸條件이 具備된 이곳에는 일찍부터 窯業이 비롯되었는데 이事實은 現地の 出土遺物에서도 곧 알 수 있었던 바이다. 卽 堆積層의 「트렌치」에서 初期의 인 作品과 一、二世紀를 두고 相異한 靑瓷들이 出土되는 바 特別히 上層部(地表에 가까운 곳)에서는 年代가 降下되는 「至正」或은 干支 등의 黑記破片이 發見되어 注目되었다. 堆積部의 大部分은 瓦當으로서 甍기와 막새기와(압막새, 솟

막새 등) 용마루기와 등으로 一色인데 암기와에서는 大、小、角形(三角形으로 모서리에 쓰이는 것) 등의 區分이 있고 어떤 기와裏面에는 「……樓西面南……」의 陰記가 있었는데 이더한 모든事實을 綜合해 본다면 當時에 이 靑瓷기와로 建築할 때는 事前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靑瓷瓦當을 使用한 建物에 對하여서는 高麗 毅宗때의 記錄(高麗史參照)이 있는데 이곳 靑瓷의 品質이나 여러가지 立地的 要件으로 보아 當時의 靑瓦製作所가 바로 이곳이 아니었던가도 생각된다. 現地發掘團의 鄭良謨 金東賢 兩氏의 正確한 實測과 發掘로서 그때의 作業場으로 推定되는 建物址와 흙으로 만든 「가마」등이 發見되었는데 이들 遺蹟은 이곳 窯址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바라 하겠다. 發掘作業이 進行되는 途中 瓦當以外에 稀貴한 練理文、白磁、天目、鐵彩、鐵釉、畫靑、黑、白堆花文 등의 高麗磁器가 出土되었는데 이런 점으로 보아 이곳은 마치 當代의 各種磁器試驗所와도 같은 느낌을 준다. 磁器의 形態로 香爐、瓶、大接、羅漢等多彩로워 더욱 注目되었다. 作業을 끝맺는 날까지 머물러지 못했던 것이 遺憾스러웠는데…… 이곳 發掘에 關하여는 앞으로 專門의 인 學術報告를 期待하면서 여기서는 다만 訪問時의 現場을 要約紹介할에서 그칠까 한다. 끝으로 現地에서 많은 指導와 便宜를 주신 發掘團여러분께 感謝를 들린다.

考古美術 뉴시스

◎文化財委 第一·第三委 合同會議(一次)

九月十一日 午後三時 開催(一分委) 金澤基 金斗鍾 金載元 李弘植 金元龍 黃壽永(三分委) 李敏載 朴萬奎 崔基哲 孫致武 鄭文基의 各委員出席、討議件은 다음과 같다.

一、金澤基委員長으로부터의 報告事項(吐含山基地保留 石窟庵을 끼 德壽宮美術館 國博合併問題)

一、史蹟 및 名勝指定…俗離山 法住寺境內 및 伽椰山 海印寺境內(指定範圍를 現地에서 다시 確認한 후 再附議하기로 하고 第一、第三分委서 各一人이 出張키